

回生論 孫女에게 (小說)

品 月

아 孫女야 깃들었다. 그러케 몹시 앓는 병이 다
났고나 인제는 바로 머리로 곱게 빛고 웃도얹절히
입고 冊床얹헤안졌고나 할멈은 절릴수엄시 도왔
섯다. 그러서 네등을 썩썩피리며 그러케 깃버
혔다. 오나어셔키라 네 그호리々々호 허리로 피아
노얹헤안져서, 오나 어셔똥어라 네 그똥청이 똥흔손
으로 싸이오링을, 아々 내몸이 仙女가된것였다.
내얹헤 天使가 侍從드는것였다. 가진 燦爛호 胡
蝶이나리드는것였다. 各色香氣러운것이 피어오르는
것였다. 나는 참아 익차라와볼수엄는 네그바르々
셀고 힘에겨워익써서 치난거시 왜그리 깃부고 도
흔지모로겐다. 孫女야 깃들었다. 네가 발 호조곡음
겨노난것만 보아도 할멈의 마음속에 깃몰이 쓰러
나온다. 네가以前과又히 힘들지안케말한마디호는것
만보아도 할멈은 더할수엄는 깃몰을세웠다.
孫女야 수위스리는말이다마는 萬一네가그티로 죽
엇더려면 엇지할번힐슬가 只今生靈판해도 몸이웃
수한지코 只은의 간질々々치온다. 총아실々々호엿
다. 이 와모되도 依持호꽃업는 너만밧고살든 할

멈은 어되다 依托호하고 누구를밧고살어가랴. 아
멈치지며 散地四方으로 울고다니는 어린子息들을 慘
酷호고 눈물이나셔 엇지보았스랴, 총 幸運이엿다.
네가 回生호야 오날 내에게 이러호 절릴수엄
는 깃몰을々々야 엇지敢히 바랐스랴 할멈은 무
롬을알고안져서 오작 하느님얹헤感謝를 되린다.
只수다시回思호니 소름이 썩々끼친다. 너는 金
枝玉葉호히 貴업게 자라났다. 기찬한번만호여도 파
독산을 다린다 눈만힘읍시셔도 人蔘농음을 맷인
다호는 너이엿다 그러케자라난네가 남의집위屬 좁
은房에 아모도되려다보아주지안코 그러케病이 危
重호도록 藥호목음 먹지못호고 그러케 飢食호얼
팔노 머리가 뒤범벅이 되어셔 氣運을 차리지못호
고 눈겹몰이 폭쳐져서 두려누엇섯다. 도모지 몰
났든네가房門을열고 드러셔々 이形狀을 쳐음當
호야 얼마나놀랐스랴 나는 뜻업시 숨몰이 쓰러
나와셔 이불속에 든네손을 쓰너어잡고 눈몰이평
평쓰다졌다. 그제셔야 너는 겨오눈을힘업시뜨고「이
게원일이오 아이고 죽겐소」힘업시 겨오이말만호
고 도로눈을 감앗다. 나는 그제에 마쳐 찬몰
을 내등에 들쳐보는것又했섯다. 그러려니 더는 다
지이러나져 驅逆질호호고 罔극々々호한 가락칭을 밧

르라고 썼소리를 無限이였다。 내 눈살은 저절로 주춤
 흐려졌고 내몸은 맛삭오고려지는것又하였다。 그러고
 冷方 내입에서나올 침이 별전피면 잊지후나후
 야 내마음이 맛삭삭삭 조렷다。 그러나 내病은肺
 病이아니고 胃病임으로 허연침이 나오는거시 千
 萬多幸이였다。 그런데 나는 그瞬間에 왜그리 禁
 慾수업시 흥々낙겨 울었는지 나는 내病이다나
 은 只수이라도 참아 쓰너입에 되푸리할勇氣가아
 니나와다。 그거슨 내가前에 極히사랑하든 親舊하
 나이 肺病으로 피를뵈고 기침을 할번始作하면 윈
 몸이 불덩이又히 熱이나려나 숨이차서되쓰는거
 술 目眩호적이 잊섯슴으로 그날 내가 애쓰는形
 狀에 偶然호 刺戟을맛아 一年前일을 回想호는同
 時에 그러케 눈물이흘녓섯다。 그사람은 그病으로
 困호야 죽었다。 그러서 追悼會도호고 一年祭々
 지 지났다。 내가晝夜로 마음이 압하셔 의를쓰
 고 가삼을치며 後悔호거슨 내가 왜 그親舊를爲
 害야 내工夫를 廢止호고 徹夜호야 看護를 못하
 였던구 恨이엇섯다。 내精誠을 다호야 그親舊에
 對 慰安을주엇더려면 그는決코 죽지안았스리라 호
 이였다。 내가 困하자다가도 잠잠을나세이면 먼
 저 내腦를 썩리며 너살을 썩르느기슨 내게이러

호는 遺恨이잇슴이였다。 그러나 그親舊는 말서 나
 의는 全世界사람이라 내가아모리 안어보코심허
 도 안을수도입고 만지고심허도 안질수도입다。 그
 리서 내가 눈물을씻고 호나 거정마라내가있다
 積을 날노困호야 푸러보라함이였고 내몸에 품고
 잇는 精力과 誠心을 내게 맛쳐보라느熱情이 스
 러나옴이였다。 네손을 너가 만질수잇고 네몸을 내
 가슴에 안을세에 나는 밋칠뜻시 깃뵈섯다。 그힘
 으로 내病이 낫고아니났는닥 썩라 내가 살고 죽
 는 運命의 길어디달난것又하였다。 不幸이 내가 그
 病으로 죽엇더려면 나는 어계밤과又히 단잔도 못
 일우엇슬터이호 오날糊飯을 맛잇게도 못먹엇슬터
 이다。 나는精神錯亂이되그 腦貧血이되여 卒倒호였
 을터이다。 아々 幸運일다 內病이 全快되고 내가
 다시 살아났다。 나는 입이찌저지도록 우슬이 나오
 고머리가 썩러지도록 출이나온다。 나는 또다시 무
 름을살어 하느님세 感謝를 올리련다。
 너는 세상적에 어머니를 잊혔다요? 그러서 할
 머니가 너를길너너섯다고 내가 種痘로 알을써
 네가熱病에걸너 죽어갈세 할머니가 울기도만하호
 시고 밤도만히 새섯다고, 그럼으로 나는 「무리할

머니의恩惠가 泰山(가소) 하며 네눈에 눈물이 글
 성령々々 하엿다。 다시 너손목을 쥐며 「당신은 내할
 머니요, 내가 이번애살아는거시 全히 할머니의精
 誠이오」 하엿다。 나는 이瞬間에 精神이 恍惚히지
 고 무어라對答을 躊躇하엿다。 나는 默念과 靜思
 에 빠져 自然히 아모말이아나나오고 感謝呼
 吸은 胸廓안에 螺旋하야 々々숨소리만 내귀
 에 雨雷소리와又히 들엿다。 으나 네가주는 할머
 니의 名稱을 나는謝絶아니하고 밧으련다。 그리
 고 어머니업고 할머니혀려져잇는 의로운너를 내
 孫女로 貴愛하고 잇겨주려한다。

感謝하다 정말感謝하다 萬一네가 내게이만흔 名
 稱을 주지아니하엿든들 나는 말업시 두리누운 病
 者업해 長々時日을 직히고안졌기도 실정이나섯을
 려이다。 이것저것 심부름다니기도 멀미도났슬러이
 다。 내가 갓잡지도안은길을徒步로 學校에서 零時
 休業時間에뛰여가서 々々보고 回步하기를 如日連
 續호도 오직네게로 밧은 할머니의 힘이식힘이
 엿다。 遠近不顧코 네가願호는바는 사다밧쳤다 畚
 甕아니라 箕畚으로 뛰여다녔다。 야니다 나들이러
 來호도록함이 決코내힘이 아니엿다。 全히 할머니
 라는 福音이 너속에드러가 丁寧々々 증을주고잇

는 서문이라고호한다。 나도 不可思議中에 一大鼓舞
 에 踊을일우엿던것이다。 如何든네불근입설에서 何
 러진 이福音이 밧작乾燥호내靈에 靈々를 띄여주
 엿고 발々 혀는 내肉에 火災과又호 活力을 준
 거실다。 아々 나는 네게로밧은 이禮物를 永久히
 記念하기爲하야 흥씩취겨노랴다。 덕 뜨집게 펄々
 뛰련다。 나는 눈물이쏟아지도록 네게 感謝를 밧
 친다。

크리미아戰役에 나이뵈겐又호天使가 突現하야 數
 萬名惡疫에 苦病을 救히주엿단다。 寢臺上에서 呻
 吟호든 聯合軍들은 나이뵈겐을 부르지어 「天使
 여 天使여 당신의 지나가는 발소리만드려도 내
 몸의 압힘이 스러지오」 담신의 한번웃는 우숨에
 는 내압힘이 낮쳐지나이다」 희단다。 으나 나는 네
 게서 밧은 할머니로 滿足호란다。 그러나 애 孫
 女야 나도 天使가 되고싶다。 그리나 數萬名의 할
 머니가되고싶다。 아이고 좀그리케되어보았스면뭇
 다。 生時는 바라지못하리라도 오날밤꿈에라도 내
 가 그렇게 좀 되어보았스면 좋조카다…… 하호고
 말라 네게서밧은 할머니는 夢인아니라 確實히 의
 거시 生時로구나 아이고 나는것바쳐엿진나 塵
 埃에 무슨報酬를취야조흔는지 내로 너를 웃게호

고 깃부게 할 기爲 할야 衷心盡力으로 準備히 보란다 其中에서 第一조흔 거스르 네게 맞치련다. 나는 生覺 만히도 조와서 이리케 주먹을 썩 쥐고 원음을 혼 든다. 고맙다.

약독이 酸초장을 먹고서야 너는 精神이 반 약하며 甘口味를 분취하고 힘지? 글세 내가 그 구진시오전에 밑피리온 酸초가루를 비부려 이손 으로 주물너 주물너히서 네게 갖다가준 나々 또 그 고린너가 풀々나는 보가 만히도 눈물이 짜질 그 리케 生覺히 보면 우술다. 「말콤하고 널시도 조흔 나 生覺히 보면 우술다. 말콤하고 널시도 조흔 무렷쓰나 가가후라이의 맛보다도 그 짜되치고 밍 디리은 약독이 맛이 그닥지 좇한말이지? 그러 면 夔夔々々하는 재반에 맞치여 하얀琉璃瓶속에 各色 元素며 酸을 띠서 잡수시라고 天使같은 看護 婦가 갖다 주든 工業이 內病根을 쟈거는 아니려구 나? 亦是 약독이! 그어등경검흔 오저항아리에 숨 썩업시 울속불속 담아서 할범이 갖다가준 그 약독이 로 內病根이 썩바졌서? 손고락을 느엇다가 썩々 짜니까 精神이 夔夔나 더란말이지? 그러편 너는 그 약독이 맛으로 回生흔 너려구나 오나 너는 죽 기前에는 그 약독이가 內精神을 반썩하게 해주든 印

象을 니질나야 니질수가 엄게 되엿구나 왜? 좀 남 들이 맛잇다는 스엿나 팜보다도 우리입에는 약독 이만치 맛잇는거슬 못못보엿다 그러고 라이스칼이나 味贈시루를 먹어도 약독이를 마저 먹어야 속이든々히 진다. 그러고 消化도 잘되는구나 인제 네비속에 는 약독이 잡썩흔 말국이 突득차잇슬러이니까 消化 도 잘될러이다 胃病도 生發生할理가 업겠지 오나 할 밍은 安心할다 너는 할수업시 약독이의 生일 다. 너도 인제 썩그런줄을 알앗슬줄 밍는다. 약 독이로 永生하는 내깃득흔 孫女兒!

消息

○저년三月九日 下午二時에 龜町區飯田町 我教堂內에서, 女子觀隨會卒 業生祝賀會를 開하였는데 그 順序가 如左하더라.

- 一、開會辭 同會 金瑪利亞
- 一、찬송 가 (五聲)
- 一、祈禱 禱
- 一、祝辭及勸勉 黃에스리
- 一、同 白南薰
- 一、祝 會員中有志 支相允
- 一、卒業生答辭 金德成
- 一、同 許英燾
- 一、同 羅蕙錫
- 一、同 宋福信